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來着’에 대한 대조 분석 연구*

서만**

|| 차례 ||

- I. 서론
- II. ‘-더라’와 ‘來着’의 기본 의미에 대한 대조 분석
- III. ‘-더라’와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에 대한 대조 분석
- IV. ‘-더라’와 ‘來着’의 담화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
- V. 결론

【 】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는 복잡한 통사적·화용적 제약을 지니고 있어 학습자들의 습득이 쉽지 않다. 또한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담화기능을 드러낸다. 본고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라’와 중국어 ‘來着’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더라’와 ‘來着’는 기본 의미와 화용적 제약에 있어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더라’의 통사적 제약이 ‘來着’에 발견되지 못했다. 담화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 ‘지각’, ‘회상’, ‘화제 및 배경’ 네 가지 영역을 설정했다. ‘회상’,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에서 ‘-더라’와 ‘來着’가 유사한 담화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 ‘지각’ 관련 영역에서 ‘-더라’가 드러내는 담화기능은 ‘來着’에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조분석 결과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더라’, ‘來着’, 대조분석, 화용적 제약, 담화기능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5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개인발표문을 보완·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來着’를 대조 분석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어 ‘-더라’는 종결어미로서 시제적 의미, 상적 의미, 양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통사적 규칙이 복잡하며 실제 사용에서 화용적으로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 또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담화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목표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학습자가 ‘-더라’의 화용적 특성이나 모국어 화자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온 사회적 약속인 담화기능에 대한 습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조민정·강현화·박동호, 2007).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더라’의 기본 의미와 통사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더라’의 화용적 특성과 담화기능에도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 ‘-더라’가 기본 의미와 화용적 특성, 담화기능 등 면에서 중국어 ‘來着’와 유사성을 지닌다. 따라서 ‘-더라’와 ‘來着’에 대한 대조 분석은 학습자들의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라’와 ‘來着’의 기본 의미, 통사적·화용적 특성, 담화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함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의 ‘-더라’와 ‘來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한·중 대조 분석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선행연구

‘-더라’와 외국어를 대조 분석하는 연구로는 모리모토 가즈히코(2002),

왕방(2007), 강홍(2010), 왕파(2013), 진관초(2015ㄱ)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각각 양태 범주, 시제 범주, 회상 표현 범주, 증거성 범주에서 '-더(라)'와 일본어·중국어를 대조 분석하였다.²⁾ 이들 논의에서 '-더(라)'의 범주의 설정에 있어 차이점을 보였지만 연구의 출발점은 모두 한국어 '-더(라)'와 타 언어 대응 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함으로써 '-더(라)'와 타 언어 대응 표현 간의 의미 대응 관계와 사용 제약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더라'와 타 언어 대응 표현의 기본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분석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실제 사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화용적 특성과 담화기능에 대한 분석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뤘던 '-더라'와 '來着'를 의미적·통사적 차원에서의 대조 분석과 더불어 '-더라'와 '來着'의 화용적 특성 및 담화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더라'의 담화기능에 대한 연구는 이숙(2008ㄱ, ㄴ)으로부터 시작하여 김명희(2013), 진관초(2015ㄴ), 강계림(2015)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숙(2008ㄱ, ㄴ)에서 화자가 '-더-' 종결형 어미를 사용하는 이유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냄으로써 1인칭 문장에서 청자에게 동지적식을 느끼게 하는 담화 효과, 2·3인칭 문장에서 청자의 체면 욕구를 채워주는 담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희(2013)에서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한 준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에서 '-거든', '-더라'가 드러내는 미시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2) 기존 연구에서 '-더라'의 증거성을 양태 범주에서 다루기도 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증거성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 선행연구로 살핀 진관초(2015ㄱ)와 같은 경우도 역시 '-더라'를 증거성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익명의 심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거성 범주는 다른 세 범주와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선행연구 내용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진관초(2015¹)에서 역시 준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상황과 비의사소통적 상황에서 혼잣말에 쓰이는 ‘-더라’의 담화기능을 분석하였다. 강계림(2015)에서 ‘-더라’의 화용론적 추론 의미를 비의도성, 공손성으로 분석하였다. 비의도성은 1인칭 주어와 ‘-더-’ 종결형 어미가 공기하는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공손성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체면 위협 요소에 대한 보상적 전략으로 ‘-더라’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후자는 이숙(2008 1, 2)에서 분석한 ‘-더라’의 담화 효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2장과 3장은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예문을 중심으로 ‘-더라’와 ‘來着’를 의미적·통사적·화용적으로 대조 분석을 한다. 4장에서 말뭉치 자료를 중심으로 ‘-더라’와 ‘來着’의 담화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담화기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연구방법은 준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예문에 대한 귀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더라’의 담화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된 준구어 말뭉치 자료에 대해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언어 자료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대사로 쓰여 각색된 언어라는 단점이 있지만, 인물관계와 상황 맥락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담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 ‘-더라’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중국어 ‘來着’의 담화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BCC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였다.³⁾

3) BCC말뭉치는 ‘BLCU Corpus Center’의 약칭으로서 중국 북경언어대학교에서 구축한 백억 글자 규모의 말뭉치이다. 심사과정에서 심사 선생님 한 분께서 준구어 말뭉치

II. '-더라'와 '來着'의 기본 의미에 대한 대조 분석

1. '-더라'의 기본 의미

그동안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에서 '-더라'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져 왔다. '-더라'의 의미는 국어학에서 회상(최현배, 1937; 김차균, 1980; 고영근, 2004), 보고(서정수, 1977), 지각(장경희, 1983)으로 분석되어 왔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 '-더라'에 대한 증거성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더라'의 중심적인 의미를 '지각'으로 보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박재연, 2006; 임채훈, 2008; 정인아, 2010; 구분관 외, 2014). 이는 '회상', '보고' 등 의미는 '-더라'의 변별적인 의미가 되지 못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이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제시하여야 할 '-더라'의 기본 의미를 상정하기 위해 사전, 문법서 및 범용 한국어교재에서 제시되어 있는 '-더라'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먼저 사전에서 '-더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와 BCC 말뭉치 자료의 등가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심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BCC 말뭉치는 구어와 문어의 말뭉치 자료가 함께 들어가 있다.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된 한국어 준구어 말뭉치와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중국어 말뭉치도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된 말뭉치 자료나 구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 대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등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BCC 말뭉치 중 구어 성격이 강한 대화 자료를 위주로 사용했다.

“(아주낮춤으로)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전달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두 사전은 그 사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더라’의 의미에 대한 기술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다.⁴⁾ 즉, ‘-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① 발화 정보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하고, ②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시점과 발화의 시점 간의 관계에 대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만 언급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더라’가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 사태를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 즉, 화자가 ‘-더라’로 발화할 때 발화의 기준 시각은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 화자가 그 사태나 행위를 경험하여 알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사들이 참고서로 삼고 있는 문법서에서는 ‘-더라’의 기본 의미를 ‘회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직접 경험’과 ‘회상’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회상’, ‘직접 경험’과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등 화자가 지각한 사태’로 제시하고 있다.⁵⁾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한국어를 국어로 하는 화자나 연구자를 사용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가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최해주(2009), 종장지(2013) 등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항목에 대한 기술 방법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문법과 구별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교육에서 문법항목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고, 다른 유사 문법항목과 변별적인 의미로 상정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보다 잘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5) 본고에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더라’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문법서 4종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3종,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3종을 검토하였다. 지면의 관계로 그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본고에서 최근 한국어교육학에서 이루어진 '-더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더라'의 의미를 '과거 지각'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과거 지각'은 '-더라'의 변별적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더라'의 통사적 제약과 화용적 제약을 모두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인아, 2010).

2. '來着'의 기본 의미

중국어 '來着'에 관한 논의는 주로 '來着'의 문법 범주 설정과 그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왔다. 초기에는 '來着'를 어기(語氣)조사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來着'를 어기조사로 간주하면서도 그 의미 기능은 시간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來着'에 관한 주요 연구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표 1〉 '來着'의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

범주 설정	연구물	의미 기능
어기조사	趙元任(1926, 1968) 朱德熙(1982) 太田辰夫(1987) 呂朋林(1987) 戴耀晶(1997) 孫錫信(1999) 呂叔湘(1999) 熊仲儒(2003, 2009) 宋文輝(2004)	가까운 연장과 먼 과거;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태; 서술어에 '이미', '벌써'의 의미를 더해줌; 회상을 나타냄; 과거 사태를 나타냄;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냄; 과거에 있었던 사태를 나타냄; 가까운 과거; 어떠한 사태에 대해 확실함을 가지고 강조;
시상조사	王力(1985) 史有爲(1994) 黃伯榮·廖序東(1997) 楊希英·王國楨(2006)	가까운 과거; 과거에 있었던 사태를 나타냄; 얼마 전에 있었던 사태를 나타냄;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이 과거임을 나타냄.

6) 宋文輝(2004), 黃愛妮(2010), 이금화(2011), 왕파(2013), 劉林(2013), 謝成名(2015)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宋玉柱(1981), 張誼生(2000), 陳前瑞(2006) 등에서 ‘來着’를 ‘來着₁’와 ‘來着₂’로 나눠서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논의에서 ‘來着₁’는 과거 시간 혹은 완성을 나타내는 시상(時相)조사로, ‘來着₂’는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 어기조사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후 劉林(2013)에서 다시 초기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여 ‘來着’를 과거에 있었던 사태를 나타내는 어기 조사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來着’의 문법 범주 설정에 대해 아직 일관된 견해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본적으로 ‘來着’가 과거 시간 혹은 어기 범주와 관련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來着’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이 (가까운) 과거임’을 나타내는 것과 ‘어떤 사태에 대하여 확실함을 가지고 강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謝成名(2015)에서 후자를 ‘來着’의 양태적 의미이지 기본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來着’의 문법 범주를 시상조사로 분석하였으며 그 기본 의미를 가까운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고 피력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來着’의 기본 의미를 ‘(가까운) 과거’로 보고자 한다.⁷⁾ 이에 따라 한국어 ‘-더라’와 중국어 ‘來着’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 (1) 가. 他在圖書館學習來着。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예문 (1)가는 이효환, 2018)
 나. 他在圖書館學習。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7) 진관초(2015-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가까운 과거’라 함은 그 정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용례에서 ‘來着’가 먼 과거의 사태에도 사용된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王力(1985)에서 그 가까운 정도에 대한 기준이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예문 (1가)에서 '來着'와 '-더라'의 대응 관계를 볼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이 직접 지각한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라는 정보를 중국어의 '來着', 한국어의 '-더라'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1가)에 비하면 '來着'를 사용하지 않은 (1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來着'의 기본 의미가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3. '-더라'와 '來着'의 기본 의미에 대한 대조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라'와 '來着'는 문법 범주 설정에 있어 모두 혼동을 겪고 있다. 또한 '-더라'의 발화 기준 시간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는 절대 시제를 따르지 않고 사태를 지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를 따른다. 과거 어느 시점에 지각한 사태를 현재의 시점으로 옮겨 전달하는 것이다. '-더라'의 시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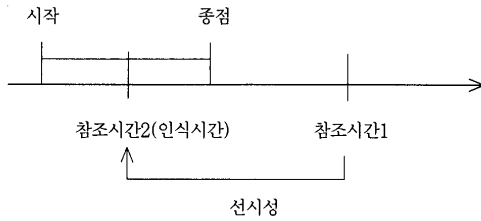


〈그림 1〉 '-더라'의 시간⁸⁾

'來着'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태가 발생하는 당시의 시점을 발화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이은수(2004)에서 '來着'의 시간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다.⁹⁾

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651)에서 제시되어 있는 “-더-의 의미” 도시를 변형시킨 것임을 밝힌다.

9) <그림 2>는 이은수(2004)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참조시간1'은 '발화시'를 나타내고 '참조시간2'는 사태를 인식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즉, 발화시인 '참조시간1'의 시



〈그림 2〉 ‘來着’의 시간(이은수, 2004)

이에 따라 한국어 ‘-더라’와 중국어 ‘來着’는 시간적 의미에 있어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來着’를 사용했을 때 그 중심적인 의미가 ‘지각/인식’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과거’에 있다. 이는 ‘-더라’와 ‘來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Ⅲ. ‘-더라’와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에 대한 대조 분석

1. ‘-더라’의 통사적·화용적 특성

먼저 ‘-더라’는 동일 주어 제약과 비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고 있다.

(2) 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빼더라.

<거침없이 하이킥 中>

가: *나는/너는/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빼더라.

‘-더라’는 화자 자신이 직접 지각하여 새로 알게 된 일을 회상하며 말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 먼저 행동하

점에 인식시인 ‘참조시간2’에 인식한 사태를 회상하면서 발화하는 것이다.

고 나중에 지각하는 경우나 화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더라'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갖게 되었다. 이는 이른바 '동일 주어 제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은 '-더라'가 서술어에 동작동사, 성상형용사,¹⁰⁾ '이다/아니다' 등이 쓰이는 평서문에 나타난다.

(3) 가: 너 진짜 재밌을 거 같애~~ 직접 보니까 멋지더라.

가': 직접 보니까 * 나는/너는/그는 멋지더라.

<거침없이 하이킥 中>

위와 같이 성상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에도 동일 주어 제약이 적용된다.

다음은 '비동일 주어 제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화자가 주어와 동일해야 하는 경우이다. '-더라'가 화자의 심정, 경험, 느낌, 판단, 의견, 감정, 신체적 고통 등 오로지 화자 자신만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언에 결합해서 사용될 때는 2·3인칭 주어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1인칭 주어와만 어울려 사용된다(정인아, 2010). 이는 다음 예문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가. 난 디지털식은 되려 귀찮더라. 그냥 숙 돌리는 게 편한데.

가'. 나는/*너는/*그는 디지털식은 되려 귀찮더라. 그냥 숙 돌리는 게 편한데.

<거침없이 하이킥 中>

10) 성상형용사는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속성이 항시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나누어진다. 성질형용사는 '겁다', '뚝뚝하다', '암전하다'와 같이 고유한 속성 곧 시간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 성질을 나타낸다. 상태형용사는 '시끄럽다', '따뜻하다', '밝다'와 같이 비항시적 모습을 나타낸다(모리모토 가즈히코, 2002).

- (5) 가. *나는/너는/그는 병실에 있더라.
나.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실에 있더라. (김차균, 1980)
- (6) 가. 어제는 내가 약을 뿌렸더니 개미가 많이 죽었더라. (장경희, 1983)
나. 내가 순이에게 오라고 했더니 순이가 왔더라. (장경희, 1983)
- (7) 가. * 나는 노래를 잘 하더라.
나.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노래를 제일 잘 하더라.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를 의식이 없는 상태를 거쳐서 사건 후에야 지각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맥에서는 (5나)에서처럼 동일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예문 (6)와 같이 화자의 ‘무의도’를 드러내는 문맥에서도 ‘-더라’의 동일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¹¹⁾

화자가 자신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맥이 주어지면 동일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예문 (7)에서 가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화자 자신이 노래를 잘 한다는 것을 새로 지각한 것이기 때문에 ‘-더라’를 사용할 수 있다.

- (8) 가. *내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 가수는 노래를 잘 하더라. (서정수, 1977)
- (9) 가. *그 시의 제목은 영산홍이더라. 내가 지었어. (장경희, 1983)
나. *스위스 수도가 쥬네브더라. (장경희, 1983)

예문 (8가)는 ‘-더라’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 (9)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정보나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정보에 대해 발화할 때

11) 일찌감치 유동석(1981)에서 ‘-더라’가 ‘무의도’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이후 장경희(1983)에서 ‘무의도’ 의미 자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무의도’가 ‘-더라’의 의미 자질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무의도’가 드러나는 문맥이 주어지면 1인칭 주어 문장에서 ‘-더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동의한다.

'-더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라'의 발화 정보는 화자 자신의 정보 세계에 새로 추가된 정보여야 한다(박진호, 2011).

(10) (남편이 아내에게)가: ?우리 아들이 합격했더라.

(남편이 아내에게)가: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이숙, 2008ㄱ)

(11) 가. ?어젯밤 우리집 불이 났더라.

나. 어젯밤 우리집 불이 났어. (이숙, 2008ㄱ)

예문(10, 11)과 같은 경우 '-더라'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더라'의 '거리감'에서 기인된다(신현숙, 1980; 이숙, 2008ㄱ, ㄴ). 발화문의 주어와 화·청자와 모두 친근한 사이일 경우, 주어가 되는 인물에게 일어난 중대한 사건을 '-더라'가 통합되는 문장으로 나타내면 마침 화·청자와 관련이 없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이 하는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거리감'을 드러내면 안 되는 주어에게 일어나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더라'로 발화하면 안 된다는 화용적 제약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더라'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을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더라'의 통사적·화용적 특성¹²⁾

'-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세상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정보 나타내는 경우;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사태의 주체인 주어와 화·청자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고, 사태가 중대한 경우;
--------------------	---

12) '거리감'은 신현숙(1980)에 의해, '무의도'는 유동석(1981)에 의해 '-더라'의 주된 의미 자질로 분석되기도 했으나 본고에서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더라'의 기본 의미를 '과거 지각'으로 상정한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거리감', '무의도'는 '-더라'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더라'의 실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자질로 간주한다.

‘더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태를 지각한 경우	동일 주어 제약	용언: 동작동사, 성상형용사, ‘이다/아니다’
	화자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를 나중에 지각한 경우	동일 주어 제약 해소	용언: ‘무의도’를 드러내는 피동사; 담화 상황: 화자의 ‘무의도’를 나타내는 문맥;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로 지각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맥.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나 신체적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	비동일 주어 제약	용언: 심정, 경험, 느낌, 판단, 의견, 감정, 신체적 고통 등 오로지 화자 자신만이 지각할 수 있는 용언.

2.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

‘來着’는 지속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만 어울리고 순간 동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은수, 2004; 이효환, 2018).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來着’가 허용되지 못한 이유는 용언 자체가 ‘순간’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용언이 나타내는 사태가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라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¹³⁾

(12) 가. *他是1990年出生來着。(이은수, 2004)

그는 1990년에 출생했더라.

나. *我祖父去年冬天過世來着。(이효환, 2018)

우리 외할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더라.

‘來着’가 ‘去年冬天(작년 겨울)’과 같은 시간 부사 등과 공기 관계를 이

13) 謝成名(2015)에서 Klein et al.(2000)의 논의를 인용하여 용언이 나타내는 사태가 항시적인 것과 비항시적인 것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항시적인 사태는 ‘是人(사람이다)’와 같이 사태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비항시적인 사태는 T 시점에 존재하나 T 시점 이후의 어느 시점인 T’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예문(11가)에서 제시한 ‘出生(출생하다)’도 ‘是人(사람이다)’와 같이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닌 항시적인 사태이다.

를 때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다르고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항시적인 사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來着’가 항시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어울려서 사용할 수 없다.

이은수(2004)에서 ‘來着’가 형용사와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약을 언급하였지만 왕과(2013), 이효환(2018)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진관초(2015ㄱ)에서도 ‘來着’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문이 제시되었다.¹⁴⁾ 이에 ‘來着’가 형용사와의 결합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3) 가. 那家店的炸醬面挺好吃(的)來着。(진관초, 2015ㄱ)

그 집 짜장면이 맛있더라.

나. 孫秉仁應當感到驕傲、自豪，而且他也一直自豪來着。(이효환, 2018)

孫秉仁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야 돼. (실제로) 그는 줄곧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왔더라.

14) 진관초(2015ㄱ)에서 ‘來着’가 심리용언과의 결합에서 1인칭 주어가 어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그가 제시한 예문을 담화 상황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가. *?我覺得老虎恐怖來着. 나는 호랑이가 무섭더라.

나. *?我很喜歡她來着. 나는 그녀가 좋더라.

진관초(2015ㄱ)에서 제시한 예문은 ‘대조’를 이루는 담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성립된다.

(2) 가. 我覺得老虎恐怖來着，但看了關於老虎的紀錄片之后，就不覺得恐怖了。

(그때) 나는 호랑이가 무섭더라. 그런데 호랑이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부터 무섭지 않게 느껴졌어.

나. 我很喜歡她來着，但後來上了大學，見不到了也就忘了。

(그때) 나는 그녀를 많이 좋아했더라.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해서 못 만나게 되니 점점 잊혀졌어.

기존 논의에서 ‘來着’가 ‘沒有’가 쓰이는 부정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되었다.¹⁵⁾ 이러한 제약은 ‘-더라’의 사용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14) 가. 他剛才沒吃荔枝來着。(宋文輝, 2004)¹⁶⁾

그는 아까 리치를 먹지 않더라.

‘-더라’는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 ‘來着’는 1, 2, 3인칭 주어와 모두 어울려서 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5) 가. 我/你/他在病房里來着。

나는/너는/그는 병실에 있더라. (=5가)

앞서 ‘-더라’가 발화 정보로부터 화용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來着’에 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

(16) 가. *那首詩的題目是영산홍來着, 是我起的。

* 그 시의 제목은 영산홍이더라. 내가 지었어. (=9가)

가’ 那首詩的題目是영산홍, 是我起的。

그 시의 제목은 영산홍이야. 내가 지었어.

나. *瑞士的首都是伯爾尼來着。

*스위스 수도가 쥬네브더라. (=9나)

나’ 瑞士的首都是伯爾尼。

스위스 수도가 쥬네브야.

15) 중국어 부정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不’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沒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16) 이효환(2018) 인용.

'來着'는 '-더라'와 달리 화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나 모든 사람이 세상 상식으로 알고 있을 정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來着'가 쓰이지 않은 문장에 비해 '來着'가 쓰인 문장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太田辰夫(1947)에 따르면 정태(靜態)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 '來着'는 과거 상황이 현재 상태와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다.¹⁷⁾ (16가)는 (16가')에 비하면 '그 시의 제목은 영산홍이다'라는 사태가 현재 상황과 다른 과거 사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현재 시점에는 시의 제목이 이미 다른 제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6나)와 (16나')도 마찬가지이다. (16나)는 한때 스위스의 수도가 쥘네브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 스위스의 수도는 쥘네브가 아닌 다른 도시라는 것을 나타낸다.

(17) 가. *他一個小時前在食堂吃飯來着, 不過我沒看見。

*그가 한 시간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 하지만 내가 못 보았다.

나. 他一個小時前在食堂吃飯, 不過我沒看見。

그가 한 시간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내가 못 보았다.

(예문 (17)은 왕파, 2012)

'-더라'와 마찬가지로 '來着'가 쓰인 문장에도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요구한다. 화자가 직접 지각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來着'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분석한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謝成名(2015)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는 앞서 제시한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와 다른 경우이다.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는 '是人(사람이다)'와 같이 변화 가능성이 없는 사태이다. 이에 비해 여기서 제시한 정태적 사태는 일반적으로 변화하지 않지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태이다. 때문에 '대조'의 의미로 '來着'의 사용이 허용된다.

〈표 3〉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

‘來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용언이 나타내는 사태가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인 경우;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沒有’ 부정문인 경우.
‘來着’를 사용하는 경우	화자가 과거 사태를 회상하여 말하는 경우.

3. ‘-더라’와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에 대한 대조 분석

본 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분석한 ‘-더라’와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에 대해 대조 분석을 하겠다. 먼저 ‘-더라’와 ‘來着’는 모두 평서문,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명령문, 청유문에 통합되지 못한다. ‘-더라’는 부정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來着’는 ‘沒有’ 부정문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더라’의 동일 주어 제약과 비동일 주어 제약이 ‘來着’에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來着’에는 ‘-더라’의 ‘거리감’과 ‘무의도’를 내포하지 않는다. 넷째, ‘-더라’의 통합 여부는 발화 정보로부터 화용적 제약을 많이 받는 반면, ‘來着’는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제약만 갖는다. 마지막으로, ‘-더라’와 ‘來着’는 모두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태에만 사용된다.

〈표 4〉 ‘-더라’와 ‘來着’의 통사적·화용적 특성에 대한 대조

통사적·화용적 특성	‘-더라’	‘來着’
평서문, 의문문에서의 사용	O	O
명령문, 청유문에서의 사용	X	X
부정문에서의 사용	O	X
동일 주어 제약/비동일 주어 제약	O	X
거리감, 무의도에 따른 실현 여부 제약	O	X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태에만 사용	O	O
과거 어느 시점에 새로 지각한 정보에만 사용	O	X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에서의 사용	O	X

IV. ‘-더라’와 ‘來着’의 담화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문법항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해당 문법항목을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문법항목이 사용되는 담화 맥락 및 맥락에 따라 드러나는 담화기능과 관련된다. 개별 문법항목이 기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부차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담화 상황 맥락에 따라 드러나는 의미는 담화기능이다.¹⁸⁾

담화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본 의미와 담화기능 간에 어떻게 연결되며, 또 기본 의미와 담화기능 간의 경계를 어떻게 짓는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개별 문법항목이 담화 상에서 드러내는 의미들은 기본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 의미들은 역시 기본 의미에서 비롯되거나 기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담화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문법항목의 기본 의미를 담화기능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문법항목의 기본 의미가 담화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담화기능에 대한 분석에서 기본 의미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다.

앞서 II장에서 한국어 ‘-더라’의 기본 의미를 ‘과거 지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문법서와 범용 한국어교재에서 ‘-더라’의 기본 의미를 일반적으로 ‘회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더라’를 사용하여 과거 사태를 나타내기 위해 기억 장치를 동원해서 회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상’ 의미는 ‘-더라’의 변별적인 의미로서 제 역할을 못하지만 ‘-더라’의 담화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III장에서 ‘-더라’의 화용적

18) 구분관(2017), 강현화(2017), 이해영 외(2018) 참조.

특성을 다루면서 ‘무의도’가 드러나는 담화 상황에서 ‘-더라’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가 배제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더라’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더라’의 담화기능을 분석하는 데 의미와 관련된 영역으로 상술한 ‘의도’, ‘지각’, ‘회상’ 관련 영역을 설정한다.

‘來着’는 ‘-더라’의 ‘무의도’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來着’의 사용에 있어 사태에 대한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각’의 의미가 ‘-더라’처럼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來着’의 담화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의도’, ‘지각’ 영역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來着’가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來着’로 발화 시에는 과거 사태를 떠올리는 ‘회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회상’ 관련 영역을 설정하여 ‘來着’의 담화기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화 정보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술한 영역들 외에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을 설정하여 ‘-더라’와 ‘來着’의 담화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⁹⁾

1. ‘-더라’의 담화기능

1) 의도 관련 영역

(1) 객관적 전달

화자 의도의 개입 여부가 ‘-더라’의 통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자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일지라도 ‘-더라’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

19) 담화기능은 담화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설령 그 무궁무진한 담화기능이 모두 분석된다고 한들 교육 현장에서 제시하면 오히려 교사와 학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 위와 같은 영역으로 한정시켰다.

로 1인칭 주어로 발화한 문장에서 '-더라'의 이러한 담화기능이 발견된다.

- (18) 민용: 머리 나쁜 애가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이브에 말이야.
우리가 오렌지 힐이라는 펜션을 예약해 났더라구. 지난 여름에.
신지: 펜션? 아 맞다 그래 예약했었다.
민용: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야. 내가 취소하려 그랬더니. 취소하
면 20만원 입금한 거 그냥 날린대요.

<거침없이 하이킥 中>

담화 (18)에서 1인칭 복수형인 '우리'가 주어로 쓰인 문장에서 '-더라'가 사용되었다. 화자와 청자는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화자가 전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펜션을 같이 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속마음이 들릴까 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더라'를 사용함으로써 '펜션을 예약해 났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관 의도가 배제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지각 관련 영역

(1) 흔적 지각

- (19) 윤호: 근데 티켓 어디서 나셨어요?
민정: 몰라. 누가 책상 위에 몰래 놓고 갔더라.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봐. ㅋㅋ.

<거침없이 하이킥 中>

화자가 어떤 사람이 티켓을 책상 위에 놓고 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놓고 간 후의 흔적을 지각한 경우에 '-었/았/였더라'를 사용하는 것이다. 박재연(2008), 진관초(2015)에서 이러한 경우에서 '-더라'가

드러내는 의미를 ‘흔적 지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 역시 ‘흔적 지각’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2) 행동 패턴 지각

(20) 명수: 넌 꼭 이러더라. 고르고 골라서 새드엔딩.

<상속자들 中>

(21) 해미: 서방님. 서방님?

민용: (음냐음냐)

해미: 자는 척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 내더라.

<거침없이 하이킥 中>

담화 (20)에서 화자가 청자를 보자마자 위와 같은 발화를 하였다. 화자가 부사 ‘꼭’과 ‘-더라’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청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각한 청자의 행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담화 (21)에서 역시 ‘꼭’과 ‘-더라’가 함께 사용되어 어떠한 유형의 사람에게 보이는 일정한 행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꼭’과 ‘-더라’가 공기 관계를 이룰 때 ‘행동 패턴 지각’의 담화기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3) 체면 위협 감소

(22) 민호: 어..(얼른 뛰어가는) 유미야!!

유미: 어 민호야.

민호: 아까 니네 반에 갔었는데 없더라?

유미: 아 음악실에 있었어. 피아노 연습하러.

<거침없이 하이킥 中>

담화(22)에서 화자가 ‘-더라’를 사용하여 청자에 관해 지각한 정보를 받

화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가 이성친구 관계이며 평소에 화자가 청자의 기분을 최대한 배려하고 청자를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가 '-더라'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자신이 지각한 사실에 대한 이유 설명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방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체면 욕구를 갖고 있다.²⁰⁾ 상대방의 이러한 체면 욕구에 위협하는 질문을 할 때는 '-더라'를 사용하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덜하게 해 준다. 2인칭 주어 문장에서 '-더라'가 드러내는 이러한 긍정적인 담화기능을 진관초(2015-7)에 따라 '체면 위협 감소'로 지칭하기로 한다.

(4) 비난

'-더라'가 2인칭 주어 문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담화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의도에 따라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기도 한다.

(23) 민용: 전교 꼴등. 누군지 자기는 알 꺼다. 자, 자기가 전교 꼴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민용: 강유미. 그래. 넌 어째 갈수록 답안 쓰는데 성의가 없어지더라.
<거침없이 하이킥 中>

담화 (23)에서 청자보다 높은 위치에 처해 있는 화자가 '-더라'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발화를 하여 청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더라'가 청자를 지향하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 쿡(Guy Cook, 2003:60; 김지홍 역), 강현석 외(2014) 참조.

3) 회상 관련 영역

(1) 회상하기

(24) 순재: (off) 벽시계..? 벽시계가 뭐더라?

순재: 신사..? 신사가 영어로 뭐더라..? 신사.. 신사..?

<거침없이 하이킥 中>

담화 (24)에서 화자가 ‘무엇+이다’와 ‘-더라’를 함께 사용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내려는 것임을 나타낸다. 화자가 지난 일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더라’ 의문문을 사용해서 기억해 내려고 하거나 청자에게 정보를 물어보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무엇’, ‘어디’, ‘누구’ 등 의문사와 함께 사용한다. 이러한 ‘-더라’의 쓰임은 대화 상황에서도 발견되었다. 화자가 ‘-더라’로 이루어진 의문문으로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묻거나 혼잣말을 하듯이 자신이 해당 정보를 회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혹은 이와 같이 혼잣말을 하여 어떠한 정보를 생각해내려고 할 때 사용한다.²¹⁾

(2)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25) 해미: 선전포고는 삼촌이 먼저 하셨으니까.

민용: 선전포고 하게 만든 분은 누구시더라?

해미: 저요? (자기 가리키며 놀랍다는 듯 चेस्चि 하고) 으으음.

(26) 신지: 좀 괜찮아?

민용: 괜찮으니까 퇴원하지.

신지: 쫓쫓 조심 좀 하지. 부실하시긴.

21) 혼잣말에 쓰이는 ‘-더라’에 대한 논의는 진관초(2015-)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진관초(2015-)에서 의사소통 상황과 비의사소통 상황으로 나뉘서 ‘-더라’ 등 증거성 표지가 각각 상황에서 나타내는 담화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용: 누가 누구보고 하는 소리냐? 감기로 쓰러져서 입원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거침없이 하이킥 中>

담화 (25, 26)에서 '-더라'가 의문사 '누구'와 함께 쓰였다. 한국어 문법서와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누구', '언제', '무엇' 등 의문사가 '-더라'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더라'가 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더라'가 의문사와 함께 사용되었으나 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때 '누구'는 청자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어 의문사로 보기 어렵다. 화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던 사태를 다시금 기억함으로써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을 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담화에서 '어떡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사태이다. 화자가 '-더라' 의문문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다소 '협박'이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발화를 하고 있다.

(27) 해미: 용서 못해...

준하: 용서 못하면 그럼..

해미: 아버님한테 얘기해야지.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더라?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한다 그러셨더라?

준하: 여보 왜 이래.. 왜 이래? 그러지 마. 아버지를 왜 끌어들여.. 여보.

<거침없이 하이킥 中>

한국어 문법서와 교재에서는 '-더라'의 '회상', '감탄' 의미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더라'를 사용함으로써 거리감을 나타내 공손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위주로 '-더라'의 긍정적인 담화기능을 중심으로

언급해 왔다. ‘-더라’가 나타내는 부정적인 기능은 ‘무의도’ 정도로만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위와 같이 ‘-더라’를 사용하여 반문을 함으로써 청자를 비난하는 담화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2인칭 주어 문장에서 청자를 지향하는 정보로 청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4)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

(1) 이유 설명 및 배경 제시

(28) 민용: 부모님 모시고 와. 내일까지.

유미: 선생님. 제가 이유를 다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란 거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설마 잊으신 건 아니죠?

... 중간 생략 ...

민용: 어제 일 말고도 상담할 거 많아. 집 전화 하니까 안 되더라. 어머니 핸드폰 번호 뭐야?

유미: (표정) 엄마 지방 공연 가셨어요.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거침없이 하이킥 中>

화자가 청자에게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집 전화 하니까 안 되더라.’라고 발화하였다. 담화화용론에서 발화 정보는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로 구분한다(박재연, 2007). 전경 정보는 화자의 일차적 의사소통 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야기를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배경 정보는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과 직접 연관되지 않으며 전경 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나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박재연, 2007; 謝成名, 2015). ‘-더라’가 담화에서 나타내는 ‘이유 설명 및 배경 제시’ 기능은 배경 정보에 속한다. 화자가 ‘집 전화 하니까 안 되더라’라고 함으로써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기 위한 이유 및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2. '來着'의 담화기능

1) 회상 관련 영역

'來着'의 기본 의미는 '(가까운) 과거'이다. 일반적으로 담화 상황에서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사태를 회상하며 전달할 때 사용한다. 의문문에서 회상과 관련한 담화기능을 드러낸다.

(1) 회상하기

(29) 가: 請你听我說。開始的時候有个年輕人來到我們出版社，他自称是个什么語的翻譯，是什么語來着……

내 말 좀 들어봐. 처음에는 어떤 젊은이가 우리 출판사로 왔었어. 무슨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슨 언어였더라..

나: 波蘭語?

폴란드어?

가: 不，不是波蘭語! 是种很難學的語言，懂得的人不多……

아니, 폴란드어 아니야! 배우기 어려운 언어였는데,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나: 是辛梅里亞語?

김메르어?

가: 不是辛梅里亞語，還要古老，叫什么來着?

그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오래된 언어였는데, 뭐였더라?

(BCC 말뭉치)

(30) ㄱ. 我們系有多少學生來着?

우리 학과에는 학생이 총 몇 명이더라?

ㄴ. 我們系有多少學生?

우리 학과에는 학생이 총 몇 명이야?

여기서 화자가 ‘來着’를 사용하여 자신이 지금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지 지금 잠시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0-)처럼 ‘來着’를 사용하지 않는 문장은 화자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2)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31) 가. 別撒謊, 回答我的問題。剛才我說什麼來着?

거짓말 하지 말고 내 질문이나 대답해. 내가 뭐라 말했더라?

나. 你說什麼了?

너 뭐라고 했는데?

(BCC 말뭉치)

(32) 가. 爲此小林老婆還和保姆吵過一架, 說你倒成貴族了, 我還吃剩菜, 你倒鬧肚子, 過去你在農村吃什麼來着? 保姆便又哭又鬧, 鬧罷工, 要換人家。

그 일 때문에 小林의 와이프가 가정부와 다투었다. 小林의 와이프가 “당신이 귀족처럼 굴지 마. 나(조차)도 남은 음식을 그냥 먹는데 당신이 (남은 음식 때문에) 설사 났다고? 옛날에 당신이 시골에서 뭐 먹었더라?”라고 하자 가정부가 파업하겠다고, 일할 곳을 옮기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BCC 말뭉치)

‘-더라’가 의문문에 쓰일 때 회상을 나타내는 것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사태를 청자로 하여금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에 맞는 행동을 요구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쓰임은 ‘來着’ 의문문에서도 발견되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사태를 기억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

을 요구할 때 '來着'를 사용하였다.

2)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

(1) 이유 설명 및 배경 제시

(33) 가. 我剛才給你打電話, 你怎么不在家?

방금 전에 너에게 전화했는데... 왜 집에 없었어?

나. 我在家。睡覺來着, 沒聽見。(謝成名, 2015)

나 집에 있었어. 자고 있었더라. 못 들었어.

위와 같은 예문에서 '來着'는 화자가 자신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담화 기능은 '-더라'에서도 발견되었다. 담화에서 전경이 아닌 배경으로서 쓰이고 전경 정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2) 대조되는 상황을 나타내기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태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때 '來着'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34) 가. 他剛才還在這儿來着。(謝成名, 2015)

그는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더라.

(35) 가: 你爲什麼不直接去我那兒?

너는 왜 나한테 바로 오지 않았어?

나: 起初, 我是打算去來着 ……

애초에, 나는 가려고 했었더라...

가: 那爲什麼沒來? 也不知道你在哪兒, 多讓人擔心呀!

그런데 왜 안 왔어? 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걱정했

는데!

나: 我是想干干淨淨地去您家。

나는 깨끗한 상태로 너한테 가려고 했던 거야.

(BCC 말뭉치)

‘來着’가 ‘대조’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原來(원래)’, ‘本來(본래)’, ‘以前(이전에)’, ‘起初(애초에)’ 등 시간 부사, ‘一開頭(애초에)’, ‘剛才(방금 전)’ 등 시간 명사와 공기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시간 부사나 시간 명사와 함께 쓰여 현재 상황과 대조되는 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기능이 드러난다.

3. ‘-더라’와 ‘來着’의 담화기능에 대한 대조 분석

1절과 2절에서 ‘-더라’와 ‘來着’가 쓰이는 담화 맥락과 해당 맥락에서 드러내는 담화기능을 살펴보았다. II장과 III장에서 분석한 ‘-더라’와 ‘來着’의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하여 ‘의도 관련 영역’, ‘지각 관련 영역’, ‘회상 관련 영역’,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에서 담화기능을 분석하였다.

‘의도 관련 영역’과 ‘지각 관련 영역’에서 ‘-더라’가 나타내는 담화기능이 ‘來着’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來着’에 ‘무의도’, ‘지각’의 의미 자질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회상 관련 영역’에서 ‘-더라’와 ‘來着’가 모두 의문문에 쓰여 ‘회상하기’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맥락에서 반문을 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던 정보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에 맞는 행동을 요구할 때 ‘-더라’와 ‘來着’를 사용한다.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에서 ‘-더라’와 ‘來着’는 모두 ‘이유 설명 및 배경 제시’의 배경 정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來着’가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조되는 상황을 나타내기’의 담화기능을 나타내는 반면 ‘-더라’에는 이러한 담화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V. 결론

본고에서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에 주목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의 '-더라'와 중국어의 '來着'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였다. 시간적 의미에 있어서는 '-더라'와 '來着'가 모두 상대시제를 나타내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더라'와 '來着'는 모두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태에만 사용된다. '-더라'의 실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자질로는 '거리감', '의도'가 있다. '來着'의 실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 동사가 1회적이고 항시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인지가 있다. '-더라'에 보이는 주어 제약 현상과 과거에 지각한 신정보만 나타낸다는 제약이 '來着'에 발견되지 않았다.

담화 상황에서 '-더라'와 '來着'가 나타내는 담화기능을 '의도 관련 영역', '지각 관련 영역', '회상 관련 영역',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도 관련 영역'과 '지각 관련 영역'에서 '-더라'가 나타내는 담화기능이 '來着'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회상 관련 영역'과 '화제 및 배경 관련 영역'에서 '-더라'와 '來着'가 유사한 담화기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한국어교육과 중국어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 지면의 관계로 교육 현황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학습자들이 '-더라'를 사용하는 양상을 살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계림,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화용론적 추론 의미』, 『언어과학』 22, 한국언어과학회, 2015, pp.1-22.
- 강현화, 『한국어 교육 문법 항목의 담화 기능 연구 - 코퍼스를 통한 귀납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7, pp.27-52.
- 강 흥, 『韓·中 時制에 관한 研究』, 인천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0.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4.
- 구분관,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 - 한국어 문법 교육은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pp.31-75.
- 구분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4.
- 김명희, 『구어체 어말어미 ‘-거든’과 ‘-더라’의 담화기능』, 『담화와인지』 20, 담화와인지학회, 2013, pp.27-51.
- 김차균,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 회상 형태소 ‘-더-’를 중심으로』, 『한글』 169, 한글학회, 1980, pp.263-334.
- 모리모토 가즈히코, 『한국어 양태소 “-더-”와 일본어 양태소 “-っけ”의 대조 분석』,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2002, pp.200-235.
-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2006.
- _____, 『‘-던가’, ‘-더라’ 의문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2008, pp.199-227.
- 박진호,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1, pp.1-25.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한국어교육학사전』, 하우, 2014.
- 서정수,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언어』 2, 한국언어학회, 1977, pp.97- 125.
- 신현숙, 『‘-더라’의 쓰임과 의미』, 『건국대학교대학원 논문집』 11, 건국대학교대학원, 1980, pp.113-123.
- 왕 방, 『한국어와 중국어 시제의 대조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왕 파, 『한·중 회상표현 ‘-더-’와 ‘來着’의 비교』, 『한국어학』 58, 한국어학회, 2013, pp.135-157.
- 유동석, 『‘더’의 의미에 대한 관건』,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1,

- pp.205-226.
- 이금화, 『한·중 회상표현 대조 및 교수법: ‘-더니’와 ‘來着’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pp.91-109.
- 이 숙, 『담화분석에 의한 문법교육: 회상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pp.1-21.
- _____, 『마침법에 나타나는 ‘더’의 담화 효과』,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2008, pp.223-245.
- 이은수, 『“來着”의 시간 의미 고찰』, 『중국어문논총』 27, 중국어문연구회, 2004, pp.119-136.
- 이혜영 외,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담화, 화용 연구 1』, 한국문화사, 2018.
- 이효환, 『한국어 ‘-더’와 중국어 ‘來着’의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임채훈, 『“감각적 증거” 양태성과 한국어 어미교육: ‘-네’, ‘-더라’, ‘-더니’, ‘-길래’ 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 이중언어학회, 2008, pp.199-234.
- 장경희, 『{더}의 의미와 그 용법』, 『언어』 8, 한국언어학회, 1983, pp.293-313.
- 정인아,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조민정·강현화·박동호, 『상용표현의 담화 기능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7, pp.465-492.
- 종장지,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구축 모델 - 표현문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pp.309-340.
- 진관초,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내착(來着)’에 대한 대조 연구』, 『한국어학』 67, 한국어학회, 2015, pp.217-245.
- _____,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담화화용적 기능: 혼잣말의 쓰임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8, 한국어의미학회, 2015, pp.79-114.
- 최해주, 『한국어 교육문법의 결합형어미 제시방식 재고 - ‘-더-’ 결합형어미를 중심으로』, 『언어와문화』 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pp.245-261.
- Guy Cook,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김지홍, 뒤침, 『담화』, 범문사, 2003.
- 黃愛妮, 『關於“來着”的几点語用認知上的思考』, 『說文解字』, 安徽文學, 2010, pp.227-228.
- 劉林, 『“來着”的語義性質和句法環境探討』, 『語言研究』 33, 2013, pp.71-78.

宋文輝, 『也論“來着”的表達功能 ——与熊仲儒同志商榷』, 『語言科學』 3, 2004, pp.58-64.

謝成名, 『“來着”的時体特征与語境的互動關係』 8, 2015, pp.196-208.

祝建軍·李愛紅, 『“來着”句法环境新探』, 『烟台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 2006, pp.231-234.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BCC말뭉치: <http://bcc.bcu.edu.cn/>

준구어 말뭉치 자료: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대본

드라마 <상속자> 대본

Abstract

A Study on the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Final Ending '-tera' and Chinese 'laizhe'

XU MAN

The Korean final ending '-tera' has restrictions in its syntactic and pragmatic which creates difficulty for the learners to acquire the term. Also, the final ending displays a range of discourse functions depending on the contexts of the discourses. Thu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ntrastive analysis between the Korean final ending '-tera' and Chinese 'laizhe' to facilitate understanding for Chinese learners. As a result, the syntactic restrictions of '-tera' were not found in 'laizhe'. Nevertheless, both '-tera' and 'laizhe' share similar basic meanings and pragmatic restrictions. To analyze the discourse functions, the researcher set up four kinds of areas. In the areas related to 'perception' and 'topic and background', both '-tera' and 'laizhe' share similar discourse functions. In the areas related to 'volition' and 'perception', the discourse functions of '-tera' were not found in 'laizhe'. It is hypothesized that the findings from such a contrastive analysis will further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learners who study Korean while at the same time, assist Korean learners who study Chinese.

Key Word: '-tera', 'laizhe', contrastive analysis, pragmatic restrictions, discourse functions

서만

소속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전자우편 : yust04k@snu.ac.kr

이 논문은 2019년 2월 12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